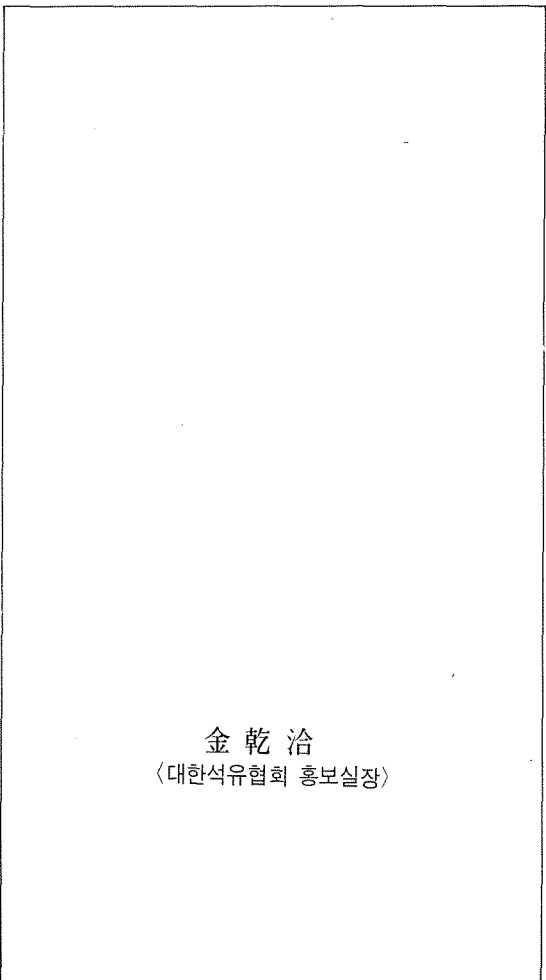


최근 수년간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왔던 세계 에너지전문가들이 금년들어부터 90년대에 제3차 석유위기의 발생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금년초 美國에너지협의회가 「에너지위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전망하고, 제3차 석유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

## 제 3 차 석유위기 오는가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하다고 건의하였다. 또 美國에너지部도 지난 1978년「에너지안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90년대 중반 이후 또 다른 석유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대응전략개발에 힘쓰고 있다. 英國정부는 '90년대에 유가상승압력이 가중될 것 같다는 전망하에 대처방안수립을 공식화하고 있다. 日本정부는 '90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제3차 석유위기 발생가능성을 가장 심각한 주제의 하나로 검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前석유장관이었던 아마니는 '90년대 중반에 가면 세계의 석유수급이 팽박해져 제3차 석유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美國의 저명한 에너지전문가인 벌리저박사는 최근 오일데일리紙에 기고한 글에서 제3차 석유위기는 지난 '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위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원유가격 인상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고, 경제적인 파급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벌리저박사는 이같은 불길한 조짐을 작년 3월 알라스카 발데즈灣 원유유출사고에서 간파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작년 4월 한달동안 휘발유가격이 19센트나 폭등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것은 한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 치고는 유례없는 폭등세였다. 그의 주장은 세계석유시장구조가 이미 한번 불붙게 되면 급속하게 위기국면에 빠져들도록 변했고, 어느 한 지역의 사고가 다른 지역시장에 신속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데즈灣 원유유출사고에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석유비축을 확대하고 석유소비를 줄일 수 있는 비상계획을 준비하라고 건의하고 있다.

'90년대 高油價시대 재현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李鳳瑞동력자원부장관은 최근 『세계석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한계에 부딪혀 1993년 이후에는 유가의 상승과 공급애로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정유사들이 주요산유국들을 하나씩 나누어 맡아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석유위기에 사전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제3차 석유위기는 올것인가. 과거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유가는 시장조건이나 정책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유가전망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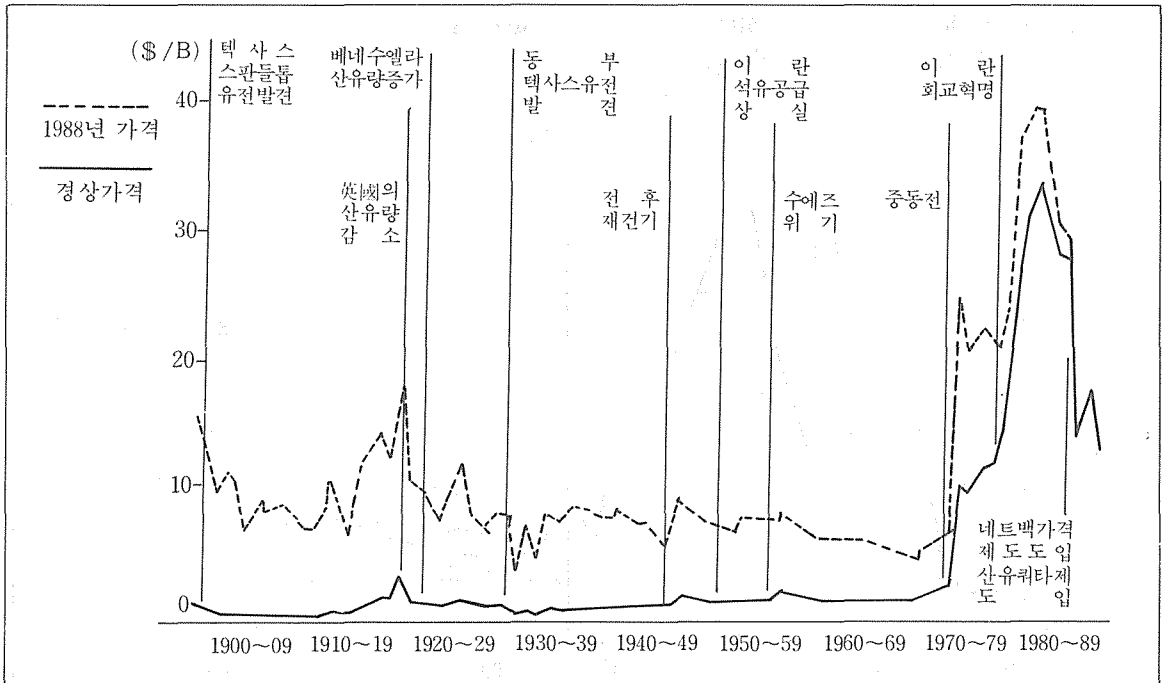
'90년대 중반에 석유수급이 팽박해지고 제3차 석유위

기가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는 석유수요동향이다.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제2차 석유위기 직후인 '80년대 전반기에 연평균 1.9%씩 감소했으나 '85~'89년 기간에는 연평균 2.6%씩 늘어나는 증가세로 反轉했다. 특히 韓國, 日本, 臺灣등 극동지역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제국은 1985년 이후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수요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해말부터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동유럽의 特需까지 겹치고 있다.

반면 공급부문에서는 '80년대 전반기 증산을 선도했던 알라스카, 北海, 멕시코, 소련등 非OPEC산유국에서의 투자부진 등으로 생산이 정체되고 있어 추가수요는 전적으로 OPEC산유국들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OPEC도 산유쿼터를 1985년의 1천6백만B/D에서 올해부터 2천2백만B/D로 늘려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灣산유국을 제외하면 생산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것은 곧 일부산유국들에

국제유가 변동추이



〈資料〉 BP

의해 유가통제가 쉬워지고 초보적인 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석유소비대국인 美國의 석유수요급증은 세계석유수급 구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80년대 후반기의 저유가로 세계에서 가장 생산코스트가 높은 美國의 국내석유생산이 타격을 입어 석유수입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美國의 석유純수입은 전체소비량의 42%인 7백20만B/D로 제1차 석유위기때의 37%를 이미 넘어 과거 최고수준이었던 1977년의 47%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OPEC의 원유생산능력은 3천만B/D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동안 수요부진으로 개발투자와 유전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2천5백만~2천6백만B/D가 고작이라는 평가다. 증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등 산유대국은 현재 공급과잉상태인데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거액의 개발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유가는 '90년대 들어 상승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美國에너지정보국(EIA)은 국제유가가 오는 2000년까지 배럴당 22~35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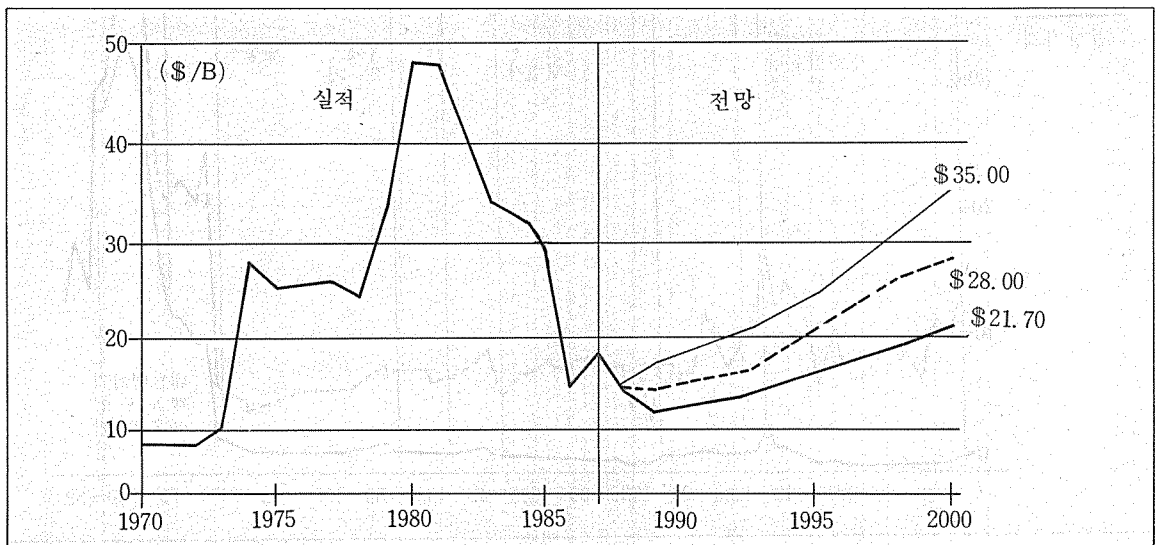
그러나 금세기중 석유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는 낙관론도 없지 않다. 낙관론의 근거로서는 우선 美國등 선진국경제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높은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石油수입이 급증하고있는 美國에서 석유안보 및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휘발유세 확대를 단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석유수요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低油價추세가 지속될 경우 90년에 들어서면 非OPEC산유국의 생산이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최근의 합리화노력과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코스트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또 만일 유가가 상승할 경우 非OPEC산유국의 증산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非OPEC산유국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산유국들의 잉여생산능력이 소진됨에 따라 시장요소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000년경에 가면 세계석유공급의 75%를 中東산유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야마나의 예언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소요원유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로서는 高油價시대에 대비하는 대응전략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국제유가전망



〈자료〉 EIA